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소재 탄현봉수 항공사진(왼쪽), 3D로 구현된 탄현봉수(오른쪽).

가야사 탄현봉수 가치 '인정'

완주 운주 탄현봉수, '전북도 기념물'로 최종 결정

완주군 운주면 금당리 소재 탄현봉수가 '전북도 기념물 제139호'로 최종 결정됐다. 16일 완주군은 탄현봉수가 전북도 기념물로 지정되면서 전북가야의 당시 영역과 역동성을 보여주는 탄현봉수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체계적 보존관리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완주군은 전북가야사 복원연구사업 일환으로 탄현봉수를 포함한 완주군 소재 가야유적에 대한 조사연구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각 유적의 보존상태와 범위, 성격 등 기초적인 학술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요 유적에 대한 도 문화재 신규 지정도 추진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최근 완주의 특색 있는

유적과 유물이 부각되는 가운데 가야사 역시 재조명 받고 있다"며 "꾸준한 조사연구로 가야의 실체를 밝힘으로써 지역적 다양성과 개방성 등 완주의 역사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에는 가야 역사와 관계되는 50개의 봉수, 산성, 제철유적이 분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의 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완주=이중복기자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서점서 책 구매"

정부, 지자체에 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공도서관 등의 책을 지역서점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소속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의 도서를 구매할 때 지역서점을 우선 이용해줄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14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학교도서관 등 공공기관에서 도서를 구입



할 때도 도서판매가 적용돼 도매업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낮은 지역서점도 도서관 도서관서점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서점 우선구매만으로는 제도 효

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지역서점 외에도 청소년업체, 건설업체, 음식점 등 다른 업종에서 서점업을 추가해 도서납품시장에 참여하는 이른바 '유령서점'도 등장하고 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재 11개 지자체는 실제 매장을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인증하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서점의 최소 기준안을 제시하고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요청했다. 또 앞으로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서점 인증제와 지역서점 우선구매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뉴시스

저작권분야 특화 전자 법의학 전문인력 양성

정부, '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 운영 지원... 내달 16일까지 신청해야

저작권분야에 특화된 전자 법의학(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지닌 전문인력이 양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는 '저작권 특화 디지털포렌식 대학원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나 노트북, 휴대폰 등 각종 저장매체나 인터넷상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이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신규 불법 온라인사이트의 운영방식이 조직화·지능화되고 있어 피의자 추적, 증거 수집 및 분석 등에서 디지털포렌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과정은 이 같은 저작권 범죄에 대한 대

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양성 과정을 운영할 시범대학 또는 대학원 1곳을 선정된 뒤 올해 9월부터 석사급 인제 15명 이상을 양성하게 된다. 사업 신청은 다음달 16일까지 할 수 있으며 정부 지원금 대비 10% 이상 현금 대응 투자를 할 수 있는 대학·대학원에 한해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달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저작권 디지털포렌식센터를 구축했으며 국내 기관 최초로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시범 성과를 평가해 인재양성 사업을 계속 확대·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박물관 지원사업 '전국 최고'

전주대 박물관, 전국 대학박물관 중 '최다' 선정
학예 등 전문인력 지원·소장품 DB화 사업 등

전주대학교 박물관(관장 김건우)은 (사)한국박물관협회에서 진행하는 박물관 지원사업에 전국 대학박물관 중 최다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전문인력 지원사업(학예·교육인력)과 소장품 DB화 사업 등 총 3개 부분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박물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전문인력의 현장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주대는 이 사업을 통해 박물관의 전시를 활성화하고 다양한 체험교육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소장품 DB화 사업은 유물의 정보를 국민

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주대 박물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소장품 관리와 소장품 정보를 일반 대중들에게 손쉽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박현수 학예연구관은 "다양한 전시를 통해 박물관이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문화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박물관은 2013년부터 다양한 국고지원사업을 통해 전시·교육·조사연구를 통해 지역사회 초·중·고등학생, 다문화 및 소외계층에게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 있다. /장은성 기자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